

사업장에서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나래R/C 정원근

저는 현, 나래 R/C의 안전 관리자 업무를 하고 있는 정원근 관리 과장입니다. 우선 저희 회사의 주 업무는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끼, 망치, 임팩, 정, 작업 가위 등 위험한 공구를 가지고 대형 냉장고, 세탁기를 전처리 (파쇄하기 전의 공정) 작업을 해야 합니다.

5년 전 제가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를 처음 배우면서 시작할 때 안전 보호구라는 것은 겨우 손에 착용하는 장갑 2켢레 뿐이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귀마개, 보호안경, 안면보호구, 안전화 등 웬만한 보호구는 다 지급을 해주었지만 현실상 작업자들은 지급을 받고는 한쪽 구석에다가 '획' 던져놓고는 장갑만 착용한 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하는 이유는 격렬하게 몸을 움직임으로써 몸에서 흐르는 땀과 안경에는 습기, 귀마개는 귀가 저리는 통증, 숨을 가



쁘게 쉬게 하는 방진 마스크 때문에 작업이 더 힘들어 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일을 시작하기 전, 일할 때 거치적거리고 불편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근로자는 “소모용 보호구를 아껴

서 쓰자”라는 엉뚱한 애사심으로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은 냉장고 전처리 작업을 하던 김○○라는 분이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한쪽 눈을 부여잡고는 맨 바닥에서 데굴데굴 구르는 것이었습니다.

주위 동료들과 달려가 보니 망치로 냉장고 내부에 있는 비철금속류를 때어 내려다가 플라스틱이 쪼개지면서 눈으로

파편이 튀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빨리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료를 받았습니

다. 병원에서 앞으로 거의 실명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후로 현장 감독자의 엄격한 지시가 내려왔는데, 어떤 업무를 하든지 보호안경을 착용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후로는 보호안경을 잘 착용하고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지속적인 관리가 이행되지 않던 회사에서는 작업자들이 또 다시 안전 보호구착용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이행해 나갈 관

리자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또 다시 눈에 플라스틱을 맞아 실명위기가 갈 뻔 한 사례가 한 번 더 있었고, 물론 전처럼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을 누구나가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만 착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안전보호구 착용을 지적하고 관리해 줄 안전 관리자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속하기를 3년, 회사는 규모가 커지면서 인천

에서 화성 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직원들도 늘어나고 작업장도 확대

되었고, 그러면서 저는 한 부서의 팀장을 맡

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팀장이 되면

서 참 많은 고민을 했고 한편으로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야 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것 하나만은 지속적으로 지켜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안전문화를 정착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아침 조회, 종례를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업무시간이 되면 그냥 자기 위치에 있다가 일을 시작하고 업무가 끝나는 시간이 되면 그냥 퇴근들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안하던 조회나 종례를 하자니 팀원들이 “재가 미쳤나?”하고



주위 동료들과 달려가 보니 망치로 냉장고 내부에 있는 비철금속류를 떼어 내려다가 플라스틱이 쪼개지면서 눈으로 파편이 튀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빨리 병원으로 후송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앞으로 거의 실명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후로 현장 감독자의 엄격한 지시가 내려왔는데, 어떤 업무를 하든지 보호안경을 착용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이 어린 저를 곱게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아랑곳 하지 않고 모두 회사와 사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저의 의지대로 이행해 나갔습니다.

우선 작업 10분 전에 모두 모여 인사를 나누고 보건 체조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를 할 때 부담이 많이 가는 손, 손목, 목, 허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스트레칭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팀원들 앞에 서서 하기가 쑥스럽고 시선도 좋지 않아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하다 보니 익숙해졌고 점점 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서로 어깨를 주물러주고 업무 투입 전, 매일 안전 구호도 외치며 안전 보호구 착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적하여 착용하길 지겹도록 공산주의 식으로 주입하니 어느 정도는 정착이 되어 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박 겉핥기식으로 되어 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여 팀장이란 타이틀로 팀원들에게 보호구 미착용자는 발각되면 인사고가에 반영한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100%는 아니더라도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무렵 노동부에서 2006년 6월부터 “안전보호구 미착용근로자 과태료 부과한다.”는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공문을 받고 여러 장을 복사하여 작업장

곳곳에 붙여 놓고 전달하였습니다. 작업자 중 공문을 보고는 어이가 없어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보호구 착용만큼은 10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전이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누구나 안전의식 함양으로 노·사를 위해, 무엇보다도 가족과 자기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지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안전 관리자의 업무를 하고 있지만 항상 모든 작업현장에서 무재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에 관계된 모든 분들께 힘들지만 여러분들로 인해 안전한 대한민국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오늘도 파이팅 하십시오. 